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조가영
이메일	gayeong96@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17

보 도 자 료

오늘날 한국영화가 있기까지... 영화인들의 사생결단, 1980년대 이후 한국 영화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컬렉션” 공개
 : 직배 반대 운동과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 관련 자료 211점



▲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지마·임권택·이태원, 약칭 비대위) 주최
 ‘우리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1998.12.01., 서울
 광화문)



▲ 비대위 주최,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범영화인
 규탄대회’(1999.6.18., 서울 광화문)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영화운동의 한 축이었던 직배 반대 운동과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기록한 아카이빙 자료들을 “영화 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라는 제목의 컬렉션으로 구성,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직배 반대·스크린쿼터 사수 운동과 관련된 사진 및 문헌 등의 자료 211점과 해설 글을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www.kmdb.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하며 외쳤던 스크린쿼터 사수!

스크린쿼터는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극장에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자국 영

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66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서울과 부산 개봉관을 대상으로 2개월에 1편 이상(=연간 6편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되 서울 개봉관은 90일, 부산 개봉관은 60일 이상 상영하도록 했다. 이후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는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2006년 연간 상영 일수의 1/5(=73일) 이상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스크린쿼터제도는 도입 이래로 줄곧 찬반양론에 휩싸였는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측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했던 반면 영화 제작자들은 스크린쿼터 확대 내지는 유지 입장을 견지했다. 영화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제도적 움직임과 스크린쿼터를 지키려는 영화계의 저항이 가시화되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태생적으로 국내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호무역 장치 중 하나였던 이 제도는 시장 개방 문제에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IMF 외환위기 해결책으로 모색된 한미투자협정(BIT)과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스크린쿼터제도는 항상 도마 위에 올려졌고, 이때마다 영화인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했다.

영상자료원이 공개한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컬렉션”은 스크린쿼터제도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진 자료는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들의 비장한 행동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의 여러 스크린쿼터 사수 집회 현장 사진에는 영화배우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용 검은 띠를 두른 각자의 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여 한국영화의 위기의식을 직관적으로 노출하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모습을 비롯해, 감독 및 제작자, 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영화인들이 집단 삭발을 하며 투쟁을 결의하는 모습 등이 기록돼 있다.

컬렉션 자료 중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이 발행한 활동백서와 자료집 역시 주목할만하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이 발족한 시점인 1990년대 초에 스크린쿼터제도의 감독, 관리 권한은 문화공보부에 있었고, 문화공보부는 이를 전국의 시와 도에 위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영화인들은 1993년 1월, 자체적으로 스크린쿼터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스크린쿼터감시단’을 조직, 발족했다(이하 ‘감시단’, 2000년 3월 ‘스크린쿼터문화연대’로 명칭 변경). 감시단은 매년 전국 극장 상영 실적과 스크린쿼터 위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제도 개선책 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컬렉션에서는 감시단이 발간한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백서」(1994.3.10. 발간)와 「94년 스크린쿼터 관련 법규 위반사례 자료집」(1995. 발간),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의 중요성과 그 준수방안」(1996.7. 발간) 등의 자료집과 세계영화인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

기 위해 영문으로 제작한 「The Screen Quota System in Korea &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2000년 발행 추정)와 같은 자료집을 통해 그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영화 직배 반대 운동의 현장 속으로



▲ UIP 직배영화 <위험한 정사> 상영 반대(1988.9.24., 서울 명동 코리아극장 앞)



▲ UIP 직배영화 <더 리빙 데이라이트 007> 상영 반대(1989.2.4., 서울 신촌 신영극장 앞)



▲ 한국영화인협회 주최 'UIP영화 직배 저지 범영화인 결기대회'(1989.2.13., 서울 동숭동 예총회관 앞)



▲ <사랑과 영혼> 상영 서울시네마타운 항의 집회(1990.12.1., 서울 종로 서울시네마타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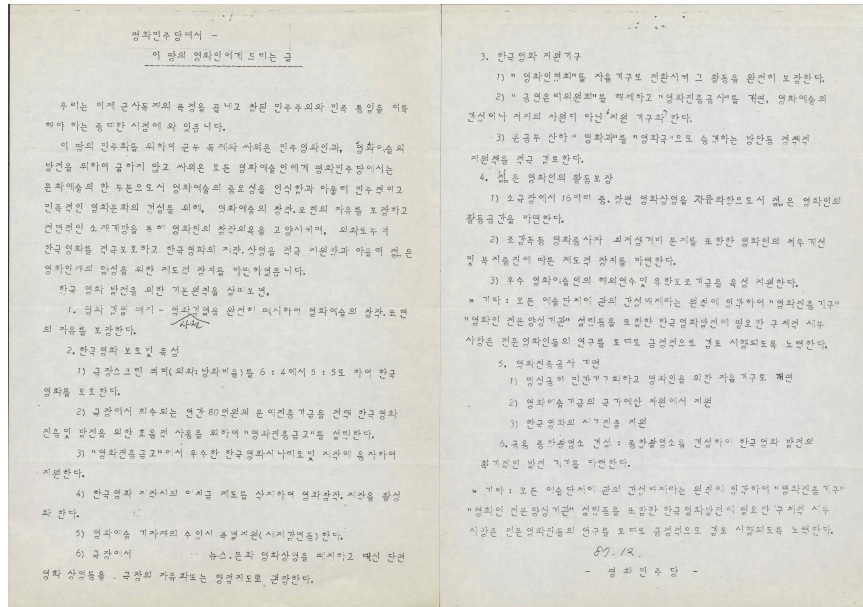
이번 컬렉션은 1980년대에 진행된 미국영화 직배 반대 운동에 대한 기록 또한 포괄한다. 1980년대 직배 반대 운동은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집단행동이었던 때문이다.

미국영화 직배 반대 운동은 영화시장 개방 문제가 첨예해진 1980년대에 미국의 압력으로 정부가 영화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촉발되었다. 영화시장 개방의 첫 행보는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이 자사의 영화를 국내 수입사나 배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급하는, 이른바 '직배' 허용이었는데, 이는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영화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영화인들이 직배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컬렉션 자료 중 상당수의 사진은 국내 첫 직배영화인 <위험한 정사 Fatal Attraction>(아드리안 린, 1987, UIP 배급) 상영을 반대하며 상영 극장인 코리아극장(서울 명동) 앞에 모인 영화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나, 두 번째 직배영화 <더 리빙 데이라이트 007 The Living Daylights>(존 글랜, 1987, UIP 배급)을 상영하는

서울 신촌의 신영극장과 부산 동보극장, 푸른극장 앞에서 열린 영화인들의 시위 모습, 서울 시내 개봉관으로 처음 입성한 직배영화 <사랑과 영혼 Ghost>(제리 주커, 1990, UIP 배급)을 상영하는 서울시네마타운(서울극장) 규탄대회에 모인 영화인들의 모습 등을 기록하고 있다.

□ 새 정부에 거는 영화인들의 새로운 희망



▲ 「평화민주당에서-이 땅의 영화인에게 드리는 글」(1987.12. 작성)

- 평화민주당은 이 글에서 현행 외화 대 방화 상영 비율 6:4를 5:5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영화 직배가 시작되면서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남은 최후의 보호장치는 스크린쿼터제도뿐이라는 인식이 영화계 안팎으로 점차 확산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직배 문제뿐 아니라 충분히 예견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주목하는 자료들 역시 상당수 눈에 띈다. 그중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무렵에 작성·배포된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영화인에게 드리는 글 II」(1987.12.11. 작성)과 「이 땅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영화인의 글」(1987.12.14. 작성)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 후보 소속 평화민주당의 영화 관련 공약이 담긴 문서 「평화민주당에서-이 땅의 영화인에게 드리는 글」(1987.12. 작성) 등의 일련의 문서들에는 한국영화의 민주화와 함께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남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다가올 새 정부에 거는 영화인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물론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문화주권을 지키려던 영화인들의 노력에도 2006년, 스크린쿼터 일수는 기존 연 143일에서 연 73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영화인들이 벌인 투쟁의 진정한 결실은 오늘날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상자료원에 아카이빙된 211점의 자료들로 구성된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컬렉션”은 한국영화사 나아가 대중문화의 역사 전반을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